

전통한옥에 대한 단상



박 선 희
(전북대학교 아동주거학과 교수)

1. 녀두리의 시작

‘한옥의 재발견’이라는 주제의 기고 청탁 전화를 받았을 때는 서슴없이 단순히 생각하여 ‘예스’라고 하였다. 막상 이 글을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이 되었는지 모른다. 무엇보다 필자보다 더 식견이나 학문적 성과가 높은 회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선 체를 해야 한다는 것이 큰 문제였고 그 다음은 가장 일반적인 주제에 이미 많은 회원들은 식상해 할 것이며 그래서 또 뻔한 이야기를 풀어 놓았을 것이라는 선입견과 귀한 지면을 할애해 형식적으로 글 만들어가기의 형태가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아마 대부분 읽지도 않게 될텐데.....라는 중압감이 원고 마감 날까지 내내 함께 밀려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전주에 살면서 무엇보다 전주시가 자랑스럽게 내세운 ‘한옥마을’의 부분적 허상만들기의 몸부림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등을 보면서 무언가 녀두리는 하고 싶어졌기 때문이었다. 또한 새삼 일기 시작한 문화관광부의 ‘한브랜드’ 지표 중 하나가 한옥이 되면서 인테리어든 주택계획이든 학생들에게 한국형 주거의 교육적 과제로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흐름과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싶기도 하였다. 즉, 나 자신을 위하여 이 글을 수락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으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두서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이라는 점을 먼저 회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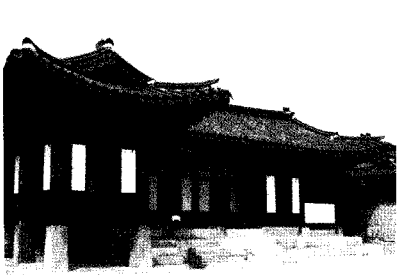
서 들어가 볼까 한다. 이런 의도에서 ‘한옥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는 당연히 전통 한옥 속에서 그 논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러한 내용은 지루한 답습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 포기하고 대신 오늘날 한국인들이 현대라는 시점에서 전통가옥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꾸려가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옥에 대한 재발견의 해답은 결국 독자 스스로의 몫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전통 한옥에 숨겨진 공간과학 -누마루와 마루방-

작년 전북대 Wise센터에서 교양과목에 새로 신설된 ‘여성과학’이라는 1주의 강의 요청에 제목을 ‘전통 한옥에 숨겨진 공간과학’으로 잡고 파워포인트를 작성하였다. 강의시간은 2시간 밖에 안되지만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한국주거의 형성과 공간적 특성에 대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강의해 보았다.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놀란 것은 그동안 그리도 많은 한옥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해야 할 과제가 많구나 하는 것이었다. 물론 각계 각층에서의 한옥 연구의 양은 많았지만 무엇보다 일반인들을 위한 한옥의 공간 구조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소개가 아직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였다.

사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전통 한옥에 숨겨진 공간의 과학적 요소들을 모르는 젊은이들이 너무도 많다. 그 중에서 필자는 무엇보다 휴식과 수납에 대한 공간구조적 개발 지

한옥의 재발견



[그림 1] 궁실 낙선재의 누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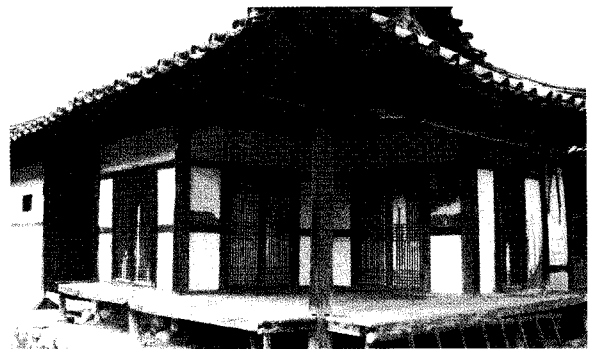
[그림 2] 전남 구례 운조루의 누마루



[그림 3] 양동미을 향단 정지 내 2층의 수장 마루공간



[그림 4] 구례 운조루 행랑채 수장용 마루방



[그림 5] 함양 정씨가의 사랑채 마루방

해가 아주 훌륭하였음을 강조하고 싶다. 공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위한 가구나 생활용품의 발달은 가히 세계적이라고 자부할 만하다. 대표적 일상 휴식인 수면을 위하여 전통적으로 매우 다양한 취침용구나 용품이 발달하였고 이러한 것들이 각기 지닌 색과 문양 등의 조형적 미는 그 상징성과 더불어 또 다른 미술 장르를 형성할 정도이다. 취침 기능으로서의 온돌방이 그동안 단연코 강조되어 왔지만 이에 못지않은 것이 사대부가의 격조 높은 여름철 휴식 공간인 누마루다. 누마루는 한옥이 가히 세계적으로 내세울만한 공간 조형으로 누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누정이 보통 '선비들이 모여 풍류를 즐기던 장소'라고 이야기하는 점으로 본다면 누마루도 사대부가의 집에서 선비들이 모여 특히 여름철 여가와 풍류 및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간의 조형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누마루 구조는 세계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주거 내 경관 감상을 위한 고상 공간이다. 서구에서는 기껏해야 발코니나 베란다 정도였을 뿐이다. 오늘날 아

파트가 조망권의 여부에 따라 프리미엄의 차가 심하다고 하지만 이미 전통 한옥에는 그러한 조망용 공간이 갖추어진 가장 현대적 기능을 담은 주택이었던 것이다.

그 다음 강조하고 싶은 공간은 마루방이다. 물론 한옥에서의 대표적 공간은 대청이다. 여기서 말하는 마루방은 대청과 퇴를 제외한 마루 공간들이다. 마루방은 매우 다기능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마루방이 행랑채에 있으면 고방이 되고 안채 정지 옆에 있을 땐 찬방이 되며 정지 위에 놓이게 될 때는 통풍이 아주 좋은 식품 수장고가 된다. 그러나 사랑채 뒤 한 편에 있을 때는 아이들의 시원한 여름철 낮잠 자기와 이야기하고 놀기 등의 쾌적한 공간이 된다 (그림 참조).

이렇듯이 지면상 두 가지 요소만 이야기했지만 한옥 공간을 지역적 사례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놀라울 만한 다양성에 또 한번 감탄하게 된다.

한옥의 재발견

3. 현대적 시도

전통 한옥이 지닌 외관이나 내부의 공간적 정서에 대한 가치 상승에 따라서 오늘날 이에 대한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앞에서 든 한옥의 마루구조 이외에도 현대 생활양식에 접목할 수 있는 공간 요소가 적지 않다고 본다. 공간의 구조에 따라 그 기능적 형태는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는데 이것이 현대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 오늘날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대체로 한옥의 공간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형태적 유형을 굳이 구분해 본다면 첫째, 한옥의 이미지 이용, 둘째, 한옥의 현대적 복원 이용, 셋째, 한옥과 현대건축의 조화 등으로 나타난다.

1) 한옥의 공간이미지 이용

한옥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한 요소 반영은 그동안 담장이나, 창호문이 많이 활용되었다. 사실 건축가 승효상이 설계한 '수졸당'의 유명세는 건축주의 요구에 의한 한국적 공간배치도 돋보이지만 무엇보다 철근콘크리트의 주택 속에 유리창문 앞에 펼쳐진 작은 중정 너머의 한국적 담장이 파급시킨 여파라고 생각된다. 창문을 통해 전개되는 시각적 감상의 지극히 절제된 내정(內庭)은 사실 한국적이라기보다는 일본의 미니멀리즘 정원 이미지가 더 떠오르는 것도 있지만 갇혀진 공간의 한계속에서 한국적 담장이 주는 정서적 여유는 생각보다 훨씬 큰 효과를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이러한 담장을 이용한 이미지 반영은 많은 이들의 공감

대가 형성되어 이후 아파트 단지(S아파트, 분당 I아파트 등)나 공원 등 공공의 열린 장소에서 꾸준히 활용되어 오고 있다.

담장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는 창호문의 적극적 도입이 많이 이루어져왔다. 70년대만 하더라도 안방 유리창문의 창살은 전통 창호의 문양이 많았다. 그러다가 단열을 위한 새시창문의 개발로 줄어들다가 오늘날은 다시 한국적 인테리어의 기본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한국적인 무언가를 판매하는 공간은 필연적으로 한국적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채용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2) 한옥 공간의 적용과 재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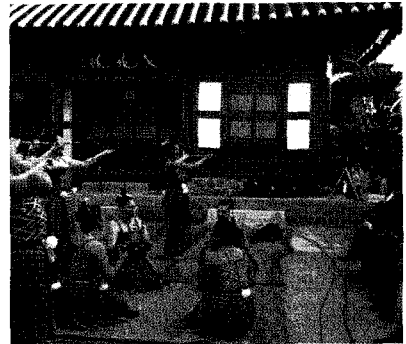
한옥 공간의 재이용에는 전통 한옥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한옥을 다시 신축하여 활용하는 경우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한옥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물론 일반 가옥이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실내는 기능적으로 개조 변형되었다. 한옥을 정말 좋아하여 신축한 경우도 부엌, 욕실 등 기능적인 부분과 생활양식 때문에 공간의 구성은 현대적으로 하고 목구조와 지붕 등의 외관은 전통적 방식으로 하고 있다. 현대에서 주택이 아닌 용도로 한옥을 신축한 대표적 사례는 삼청각이다. 이것은 1972년 정부가 남북공동회담을 위한 만찬장소의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이와 같이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옥과 한식은 산업화 사회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여전히 실제적 기능으로서의 공간과 아울러 국가적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9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문화재로 지



[그림 6] 서울 S씨 한옥



[그림 7] 삼청각 전경



[그림 8] 전주한옥마을 생활체험관에서의 마당공연

한옥의 재발견

정된 한옥을 제외하고는 아파트가 주요 주거로 되면서 한옥은 사실 거주자나 관련 연구자를 제외한 온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 되었다. 그러다가 90년대 말 IMF를 거친 이후 경제성장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건설회사의 전략적 분량의 이면 속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던 인테리어 산업의 여파는 실내공간의 질적 상승을 가져왔고 사실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새롭게 몰아친 ‘웰빙’이라는 단어가 깨우쳐 준 것은 과연 우리 집과 가족이 건강한가였으며 그동안 한국 도시와 주택 개발의 효자이자 주역인 시멘트는 난데없이 어느 날 죄인이 되어 버렸다.

결국 건강이 화두가 되면서 등장한 흙집과 친환경 마감 재료에 대한 관심은 시골 흙집과 한옥에 대한 질적 대우와 위치를 부상시키게 되었으니 이 역시 격세지감이라 할만 하지 않을까?

■ 전주 한옥마을

전통이라는 화두가 정부의 주요 정책이 되면서 전라도 기존의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관광수입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전통도시의 이미지 구현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한옥마을 거주자들은 과거 한옥지구에 묶여 개발 제한이 되는 것을 원망하고 세를 주고 떠나갔는데 지금은 전주에서 가장 비싼 땅값의 지역이 되어 버렸다. 한옥이 효자부동산이 된 것이다. 결국 조선시대의 한옥은 문화재로, 근대 일제강점기시대의 도시형 한옥은 집단의 외형적 이미지가 주는 자산 효과의 극대화로 인한 전통의 맥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옥마을은 기존 거주자들의 가옥, 개보수를 통해 정비한 가옥, 신축가옥 등 세 유형으로 대별된다. 개보수를 통해 정비된 가옥이란 기존 한옥을 매입하여 기능별 공간 내부를 수리한 것들이다. 즉, 내부를 찻집이나 식당, 한지 판매점, 공방, 그리고 생활체험관 등으로 개조한 것이다. 신축가옥은 매우 다양하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가옥 규모가 제한되어 주거가 아닌 전시관이나 박물관이나 문학관등 새롭게 선을 보인 한옥들이 외형적으로는 각 채별로 건립되어 아담한 가옥 규모를 지니게 되

었다. 그러나 살림집의 규모 이상이나 건축 형태의 제한을 두다 보니 한옥의 현대적 발달과는 관계없이 국적 없는 외형적 단순 복원만 반복하게 되어 전통한옥도 아니고 현대적 공간 구조와 접목한 건축적 발달 과정도 아닌 어정쩡한 동네가 되어 가고 있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최근에 한옥마을에 개원한 혼불의 작가 최명희문학관도 그렇게 되었다. 필자가 처음 토지 위치부터 개관사까지의 전 과정을 참여 및 자문하면서 느낀 점은 아직 한국적인 것의 진정한 발달을 성숙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문학관 형태에 대한 디자인 논의 과정에서 한옥 그대로보다는 현대적 해석으로 재편성한 건물 형태에 적극적으로 동감하였던 시 관계자도 애석해 한 도면을 회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제시해 본다. 하여간 그런 상황에서도 기존의 건물과는 좀 다르게 평면구성이나 구조가 반영되었던 점이 보람이 있었다.

3) 한옥과 현대건축의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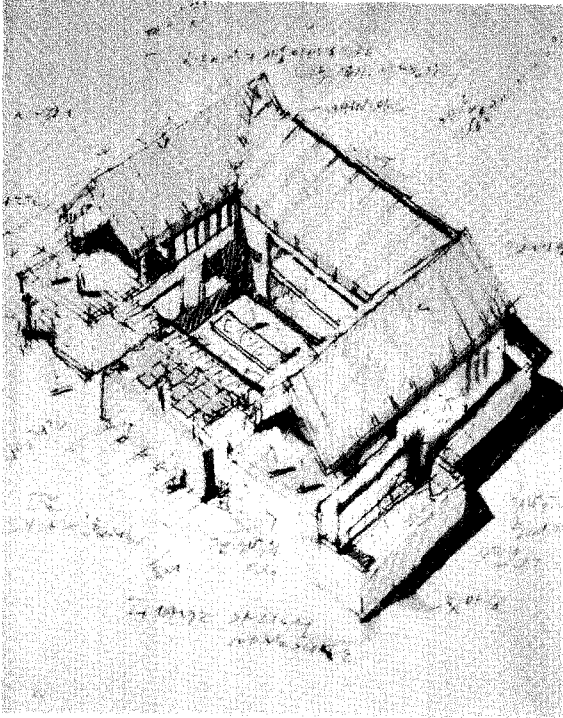
■ DBEW센터

대부분의 회원이 다 잘 아시겠지만 2004년 공개된 건축가 김석철이 설계한 한샘의 DBEW 디자인센터는 매우 혁신적이다. 처음 이 건물이 소개된 화보를 보고 매우 신선한 충격을 받은 기억이 새롭다. 현대건축과의 절묘한 조화는 무엇보다 앞서서도 언급한 빼어난 누마루 구조의 차용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역시 전통 누마루를 염두에 둔 건축가의 식견이 탁월한 데 이를 전통적인 담장의 지형적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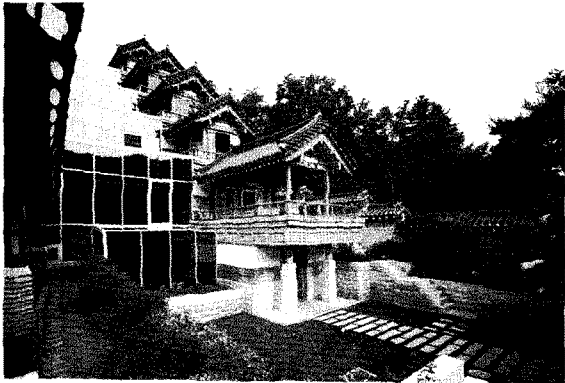


[그림 9] 공사 당시 최명희문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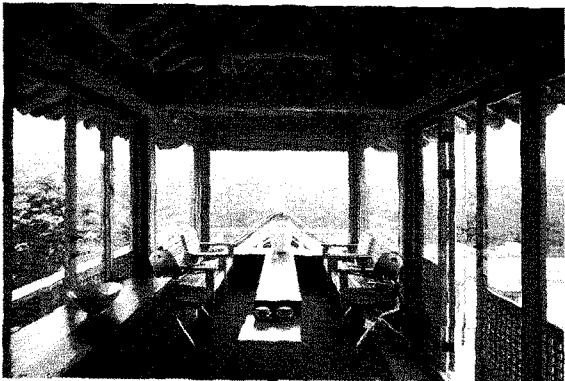
한옥의 재발견



[그림 10] 한옥형 박물관 설계안 사례(건축가 김주석)



[그림 11] DBEW 디자인센터



수법에 활용한 고도의 치밀한 계획이 멋진 디자인으로 탈바꿈되었고 현대건축과의 조화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것이다. 물론 김석철은 전통건축을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건축의 문법을 현대건축으로 변환하여 서로 상생하도록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작가 역시 현대건축은 기능을, 전통공간은 쉼터를 목적으로 했다는 설계 의도(플러스, 0409)는 한옥이 지닌 정서성의 가치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코리안 엣지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엣지(edge)’란 뭔가 차별화된 특색을 가진다는 의미로 젊은 층에 널리 애용된다고 한다. 건축공간으로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의 기능을 가진 ‘가회현’(건축가 황두진디자인)이 요즘 많이 소개되고 있다. “재동의 한옥에 유리상자에 넣은 듯한 세련된 바를 접목시키고 근사한 조명을.....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현대식 건물과 전통건물이 멋진 조화를 이룬 것” 이라고 K신문에 소개되었다. 이러한 과감한 시도 역시 위의 DBEW센터의 영향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시도가 대중의 의식 속에 별 저항없이 적용되는 것은 오늘날 믹스 앤 매치(Mix & Match)와 같은 다양한 개성 사조의 포괄도 한 몫 한다고 생각한다.



[그림 12] 가회현

한옥의 재발견

4. 앞으로의 과제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는 21세기의 생활을 담아내는 현대 한옥의 모델이 없다.

전주 한옥마을의 생활체험관은 시의 위탁경영 2개소, 대학부설 1개소, 개인 1개소 등 4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인기는 아주 높아 사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이다. 그러나 생활체험관을 목적으로 기획되고 설계된 한옥의 평면에서는 몇 가지 내방객을 위한 배려가 없어 불편하기 짝이 없다. 화장실이나 샤워실을 제외하고 퇴를 통하여 각 침실로 진입하는 방식이 우천시에는 아주 애로사항이다. 화장실이 부설되지 않은 침실은 더 심하다. 또한 내방객을 위한 조식의 내용이나 일괄 차림하는 상차림 방식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 즉, 관리 방식의 프로그램이 아직 미

숙한 점이 많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중국이 사합원 주택의 공간 구조를 응용한 호텔 무이산장이나 집합주택 취얼호통 프로젝트와 같은 건축문화 발달의 구심체 모델을 먼저 제시할 수 있다는 역량과 의식이 오히려 부러울 정도이다. 아직 우리는 전통 아니면 현대로 양분되는 상황의 수준 밖에 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빠른 시일 내에 한옥의 부분적 활용이 아닌 전반적 재해석이 담긴 모델이 연구되고 제시되기를 기대해본다. 그 외에도 산적한 과제의 해결이 많지만 머잖아 미래 황금기 시대(Golden Age)의 주역인 영민한 우리 후학·후손들이 잘 해결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